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 조사연구

장기연*, 이은진**, 공명자***, 강미영****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겸임교수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작업치료사로 일반적 특성 및 10개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응답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131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 평균은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의식 및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주제어 : 인권, 인권감수성,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교신저자 : 강미영(miyeong@wsu.ac.kr)

|| 접수일: 2023.08.29

|| 심사일: 2023.09.18

|| 게재승인일: 2023.10.24

I. 서론

작업치료는 개인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는 활동의 집합인 작업을 목적과 수단으로 하는 학문으로(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2016), 작업치료의 영역은 환원주의적 관점으로의 개인의 능력 감소 및 손상에 대한 치료에서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보는 인권 회복과 안녕에 관련된 접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작업의 공정성(occupational justice)이라는 작업치료의 주요 개념으로 교육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강개념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 및 생활모델의 관점을 가진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마찬가지로 작업치료도 작업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작업가능화(enabling occupation)를 치료의 목표로 한다. 작업치료에서 의미하는 작업가능화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본인의 환경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작업들을 선택, 조직화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작업가능화를 위해서는 개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도 불공정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는 장애인의 손상(impairments)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관점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줄이는 것보다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자주권을 되찾게 한다는 데 두고 있다(Lee et al., 2016).

세계작업치료사연맹에서는 공식적으로 인권보호(human rights)와 보장 같은 맥락의 작업 공정성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WFOT, 2016), 윤리적 치료행위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작업치료의 치료적 기술임을 강조하며 작업치료사의 윤리 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인증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작업치료사협회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작업 공정성의 침해 상황들에 대해 신중하

검토과정을 두고 있는데(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8), 국내에서도 전문 직역으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책임,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와 지식함양을 위한 인권관련 교육 및 인권행동 제고를 위한 정책적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2018). 이와 같이 작업치료에서의 작업 공정성, 다시 말해 인권이 존중되고 현실화되는 작업가능화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본질적·우선적·기본적 권리(Moon et al., 2002), 인간의 삶 자체를 넘어 존엄을 갖는 삶,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 개념이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지식,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에 관한 신념을 나타내는 인권 판단력,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권행동의사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1).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상상해보며, 자신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 과정으로서 인권옹호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Lee et al., 2009).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의 하위 요소로는 상황 지각 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 지각 능력이 있다(Noh, 2016). 상황 지각 능력은 특수한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결과 지각 능력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 능력은 개인적 책임에 관련된 지각 능력을 말하며 인권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연관지어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인권감수성은 인권에 대한 단순한 감정과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면에서 민감하게 수용하는 심리적 능력으로, 인권에 대한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와 연결된다. 공감적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공감하며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인권옹호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Noh, 2016). 이와 같이 정서공감은 인권옹호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 요인이 되므로 교육계는 단순히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 왔다(Hong et al., 2014).

작업치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기본으로 갖춰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작업치료사의 사명이다.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작업가능화를 위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가능화뿐만 아니라 공정과 통합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Townsend & Polatajko, 2008).

개인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을 민감하게 느끼고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행동이 작업치료사의 중요한 책무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 분야에서 인권은 아직 낮은 개념이다. 대부분의 작업치료사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생소한 분야로 인권을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을 임상현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논쟁이나 불법적인 행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말, 인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일반인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인본주의적 역사를 생각해 볼 때(최혜숙 등, 2018), 작업치료와 인권은 태

생에서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인권감수성을 비롯한 인권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작업치료사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작업 비공정성 상황을 잘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을 넘어 클라이언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하여 실제적 옹호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Hwang & Choi, 2015).

지금까지 인권감수성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의 국내 연구로는 주로 정신보건영역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낙인,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을 파악한 연구(Jung, 2006),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Ju et al., 2013)와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포함한 일부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Chang et al., 2017; Kim, 2016)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별 등 인구학적 차이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인권인식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Ahn & Lee, 2022; Chang et al., 2017; Kim et al., 2022; Park & Yang, 2017). 그러나 작업 공정성을 치료기술요소로 하여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연구는 적어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조사하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현장의 실천과 행동에 앞서 작업 공정성 등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작업치료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감수성과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이 고양된 임상적 실천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인권인식 증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작업치료사들의 변인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작업치료사들의 변인 간 에피소드, 하위요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으로 선정된 전국의 작업치료사들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등록된 작업치료사들의 취업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기관에 설문 의뢰를 하였으며 승낙한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 \beta$) .95, 중간 효과크기 (effect size) .03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 111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면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15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총 131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우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No. 1041549-170412-SB-43) 심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면설문조사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면을 위하여 본 연구의 진행은 자발적 참여 시 이루어지며 연구 불참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연구 중도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할 것에 대하여 동의서에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고자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임상경험 1년 이상인 작업치료사에게 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지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정도, 전문분야 경력, 차별경험 유무, 인권교육 경험 유무, 인권교육 이수과정, 인권교육과정 필요성으로 구성한다.

1) 인권감수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에서 대학생 및 성인용 검사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지표를 사용하였다. 인권감수성 도구는 10개의 에피소드(노인의 결혼할 권리, 체포·구금·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 받을 권리,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환경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권 침해,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에피소드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10문항씩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지각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 수용하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이며, 결과지각은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지각하는 능력이다. 이는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 능력도 포함된다. 책임지각은 인권 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연관지어 지각하여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NHRCK, 2002). 하위 항목의 측정을 위해 인권감수성 측정문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측정 총 30문항이 함께 제시된다. 인권감수성 측정문항 점수가 인권감수성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 측정문항 점수보다 높은 반응만을 선택하였고 그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반응보다 다른 가치 문항에 대한 반응이 높을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중요하다'로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문항당 0~5점을 받을 수 있다. 각 에피소드마다 3문항이 있어 한 에피소드당 0~15점이 측정될 수 있다. 본 도구는 총점 0~150점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IBM Corp.)을 사용 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 정도는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 인권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65.6%)이 남성(34.4%)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만 25.78세였다. 거주지역은 특별시·광역시(60.3%), 중소도시 지역(3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학교 졸업(98.5%)이었으며,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은 1.5%로 나타났고, 보건관련 분야 총 근무기간으로는 평균 3년 1개월로 나타났다. 항목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는 성별 35.1%, 장애여부 2.3%, 연령 34.4%, 채용과정 10.7%, 학력 14.5%, 외모 15.3%, 출신지역 7.6%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작업치료사들은 69.5%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작업치료사들 30.5%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들은 근무

기관 45.8%, 대학교 33.3%, 중고등학교 14.6% 순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35.9%, 매우 그렇다 28.2%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 인권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인권감수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귀무가설인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하지만 분석된 단순 평균값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는 남성은 58.75점(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 = 26.976$), 여성은 55.44점($SD = 25.148$)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는 특별시·광역시 지역 58.71점($SD = 29.055$), 중소도시 지역 51.54점($SD = 19.131$)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의 평균 점수가 60.23점($SD = 28.972$)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작업치료사 53.79점($SD = 23.9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38점($SD = 24.245$),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55.43점($SD = 27.132$)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에피소드별 작업치료사 인권감수성 차이는 'Episode 2.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7.96점($SD = 5.121$), 여성 4.76점($SD = 4.880$)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Episode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에피소드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Episode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권리', 여성의 경우 'Episode 3.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 = 131)

Variable	Categories	<i>n</i> (%) or <i>mean</i> ± <i>SD</i>	
Sex	Male	45 (34.4)	
	Female	86 (65.6)	
Age (yr)		25.78 ± 3.214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79 (60.3)	
	Small and medium-size city	52 (39.7)	
Education	University graduation	129 (98.5)	
	Graduate school attendance and graduation	2 (1.5)	
Total length of service in health-related fields		3 years 1 month ± 33.708	
Discrimination experience		Yes	No
	Sex	46 (35.1)	85 (64.9)
	Disability status	3 (2.3)	128 (97.7)
	Age	45 (34.4)	86 (65.6)
	Recruitment process	14 (10.7)	117 (89.3)
	Educational background	19 (14.5)	112 (85.5)
	Appearance	20 (15.3)	111 (84.7)
	A region of origin	10 (7.6)	121 (92.4)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Presence or absence	40 (30.5)	91 (69.5)
	Number	1.42 ± 0.929	
	Time	2.30 ± 1.717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 (<i>n</i> = 48)	A place of work	22 (45.8)	
	University	16 (33.3)	
	Additional education	3 (6.3)	
	Middle and high school	7 (14.6)	
Necessity of human rights curriculum	Strongly disagree	-	
	Disagree	2 (1.5)	
	Neutral	45 (34.4)	
	Agree	47 (35.9)	
	Strongly agree	37 (28.2)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Differences in Human Right Sensitivity by Variables

Variable	Categories	<i>Mean</i> ± <i>SD</i>	<i>t</i> / <i>F</i>	<i>p</i> -value
Sex	Male	58.75 ± 26.976	0.865	.389
	Female	55.44 ± 25.148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58.71 ± 29.055	1.637	.104
	Small and medium-size city	51.54 ± 19.131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Yes	60.23 ± 28.972	1.290	.200
	No	53.79 ± 23.955		
Discrimination experience	Yes	56.38 ± 24.245	-0.200	.841
	No	55.43 ± 27.132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by Episodes Between Sex

Episode	Sex		t	p-value
	Male	Female		
Episode 1.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7.57 ± 4.967	7.66 ± 5.238	-0.095	.929
Episode 2. Right not to suffer illegal arrest, restriction	7.96 ± 5.121	4.76 ± 4.880	3.504	.001**
Episode 3.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7.18 ± 5.301	8.60 ± 5.155	-1.467	.145
Episode 4. Right to labor in migrant workers	8.13 ± 5.354	7.74 ± 5.540	0.388	.698
Episode 5. Environmental rights	3.93 ± 5.354	4.33 ± 5.215	-0.412	.681
Episode 6. Equal rights	6.04 ± 5.213	7.38 ± 5.576	-1.334	.184
Episode 7. Privacy rights	4.41 ± 4.843	4.14 ± 4.703	0.306	.760
Episode 8.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4.87 ± 5.208	4.18 ± 5.577	0.532	.494
Episode 9. Privacy rights in mental illness	4.91 ± 5.116	4.17 ± 5.592	0.331	.463
Episode 10. 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2.80 ± 4.511	1.44 ± 3.176	1.800	.0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p* < .01).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by Subcategories

Sub-categories	Sex		t	p-value
	Male	Female		
Perception of situation	19.66 ± 9.331	19.70 ± 9.269	-0.025	.980
Perception of result	18.43 ± 10.645	17.67 ± 8.553	0.435	.664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20.56 ± 9.630	17.24 ± 9.689	1.836	.0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임시각으로 구분되며 책임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은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 실천의 의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IV. 고찰

작업치료사들은 인간의 작업적 권리를 중심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인권옹호 기반의 이념을 가지고, 작업적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변화촉진가로 활동해야 한다(Townsend & Polatajko, 2008). 개인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을 민감하게 느끼고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행동이 작업치료사의 중요한 책무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

치료사가 작업치료 임상현장의 실천과 행동에 앞서 작업 공정성과 같은 인권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인권감수성을 파악하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조사하였다.

변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이 58.75점, 여성은 55.44점으로 남성의 평균점수가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의 평균점수가 60.23점으로 경험이 없는 작업치료사의 53.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Hong (2018)의 연구에서도 작업치료사 남성이 여성보다 인권감수성 평균점수가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수준이 향상됨을 보고한 Kim과 Chung (20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im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고, 작업치료학과 대학

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Chang et al.,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은 45명, 여성은 86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표본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성별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의 행복할 권리'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노인의 행복할 권리'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여, 남성과 여성 모두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리와 노인의 행복할 권리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 전공 대학생 및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의 에피소드 중심 인권감수성 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Chang et al., 2017; Kim, 2020).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에피소드별 높은 점수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Episode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남성이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관련 학생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은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으나(Chang et al., 2017; Kim, 2020),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계일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Kim & Yeum, 2013). 성별 인권감수성에 대해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 상황지각, 결과지각 순서로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책임지각은 인권 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연관시켜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에 대해 성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지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책임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Lee, 2017),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You, 2021).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황지각에는 공감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상황지각이 높게 나타나고,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의 경험이 많을수록 책임지각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2017; You,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이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과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권교육 후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Burm et al., 2020; Jang et al., 2018; Kim & Chung, 2017),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을 통한 감수성 수준 차이 및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표본 수가 적고 남녀의 표본 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률표집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국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작업 공정성 실천에 대한 국내 작업치료분야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선행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수준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의 평균점수가 60.23점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작업치료사 53.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의 성별, 거주지역, 인권교육경험의 유무, 차별경험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다소 나타났으며, 인권감수성의 에피소드 및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남녀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 및 예비 작업치료사를 위한 인권의식 및 인권행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23년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 최혜숙, 김수일, 김정자, 김환희, 노종수, 박수현, 방요순, 송우진, 송창순, 염희영, 오윤택, 유은영, 이재신, 이지연, 이지은, 이혜선, 장문영, 정민예, 정병록, ... 홍재란 (역) (2018). *Pedretti's 작업치료학*(제8판). 한미의학.
- Ahn, E. Y., & Lee, H. K. (2022). Effect of nurse's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of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9(2), 205-219. <https://doi.org/10.12925/jkocs.2022.39.2.205>
- Burm, E., Chun, Y. E., Choi, A. S., & Gu, J. A. (2020). Effectiveness in the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through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improvement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1), 81-88.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1.081>
- Chang, K. Y., Lee, E. J., & Kong, M. J. (2017). Study o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3), 141-152. <https://doi.org/10.14519/jksot.2017.25.3.11>
- Hong, K. H. (2018).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8(3), 49-57. <https://doi.org/10.18598/kcbot.2018.8.3.05>
- Hong, S. H., Won, M. S., Park, M. H., & Mun, J. 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school violence attitud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3), 43-63.
- Hwang, J. Y., & Choi, H. (2015).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455-46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455>

- Jang, S. J., Oh, H. A., Son, K. W., & Cho, S. J. (2018). A study on evaluating the effects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Mental Health*, *8*(1), 14-23.
- Ju, H. G., Lee, K. J., & Kim, H. S. (2013).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3), 169-179.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3.169>
- Jung, S. Y. (2006).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ofessionals in the mental hospital. *Mental Health & Social Work*, *23*, 59-87.
- Kim, J. Y.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ypology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6*(2), 57-83. <https://doi.org/10.29175/klrea.6.2.201112.57>
- Kim, S. E. (2016).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355-362. <https://doi.org/10.14400/JDC.2016.14.4.355>
- Kim, S. Y.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410-418. <https://doi.org/10.5762/KAIS.2020.21.4.410>
- Kim, H. R., & Chung, M. S. (2017).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empathy of people working in elderly nursing hom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2), 275-297. <https://doi.org/10.21194/kjgsw.72.2.201706.275>
- Kim, J. M., Hong, K. H., Lee, C. Y., & Kim, H. J. (2020).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0*(2), 11-24. <https://doi.org/10.18598/kcbot.2020.10.2.02>
- Kim, K., Kim, H., & Sunwoo, H. (2022). A study of gender sensitivity differences based on gender and grade of adolesc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2), 705-720. <https://doi.org/10.22143/HSS21.13.2.50>
- Kim, S. P., & Yeum, M. G. (2013). The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gwipo, Jeju-do.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8*(2), 23-49. <https://doi.org/10.29175/klrea.8.2.201308.23>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2018).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main page*. <https://www.kaot.org/main/index.jsp>
- Lee, E. H. (2017).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DSpace@EWha.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41525>
- Lee, H. Y., Choi, K. Y., & Lee, H. Y.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hild welfare education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1), 73-96.
- Lee, D. S., Lee, S. W., Kim, K. J., Chang, Y. J., Hwang, E. S., & Lee, J. E. (2016). *A study on the practice of human right - based occupational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 Moon, Y. J., Moon, M. H., Guak, Y. J., Kim, M. K., & Yoo, K. J.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Noh, H. J. (2016). Moral education for cultiva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53*, 125-144. <https://doi.org/10.18338/kojmee.2016..53.125>
- Park, H. S., & Yang, S. H. (2017). Validation and analysis of a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6*, 33-58. <https://doi.org/10.17939/hushss.2017..56.002>
-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8). *Ethics*. <https://www.aota.org/Practice/Ethics.aspx>
- Townsend, E. A., & Polatajko, H. J. (2008). *Enabling occupation II: Advancing an occupational therapy vision for health, well-being, and justice through occupation*. CAOT Publications ACE.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6).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Human Rights Educating Occupational Therapists - Poster*. <http://www.wfot.org/ResourceCentre.aspx>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WHO.

You, Y. H. (2021).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elfare agency workers in Jeju*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Republic of Korea

Chang, Ki-Yeon*, Ph.D., O.T., Lee, Eun-Jin**, Ph.D., Social Welfare,
Kong, Myung-Ja***, Ph.D., O.T., Gang, Mi-Yeo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Dementia Special Rehabili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etween variables to provide a basis for awareness, human rights behavior,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Methods :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10 human rights susceptibility episodes was distributed, and 131 copies were analyzed.

Results : The average scor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58.75 for male and 55.44 for female therapists. As for the difference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episode by sex,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ight to avoid illegal arrest and restriction and the 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In addition,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hange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subcategor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males, the average score for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was the highest, and in the case of females, the average score for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the highest.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 of educational programs in clinical settings to improv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behavior.

Keywords :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Occupation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y